

## 진현환 제1차관, “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” 당부

- 28일 오후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점검 현장 찾아 내실 있는 점검 강조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공동주택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 - 오늘 점검한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3층 지상 20층 4개동 512세대 규모로 '06년 준공하였다.
  - 「시설물안전법」상 제2종시설물(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)로 관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.
-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부(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)\* 소관시설 사면·옹벽 등 15,326개소를 대상으로 각 관리주체별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.
  - \*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민자고속도로
- 점검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,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붕괴·전도·낙석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.
- 진 차관은 현장에서 안전점검 진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“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“점검결과 긴급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 
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문봉섭 (044-201-3768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호 (044-201-3585)

